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5. 27.(월) 11:00,
(지면) 2024. 5. 28.(화) 조간

배포 2024. 5. 27.(월) 06:00

친환경선박 도입, 진단부터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

- 6월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진단·컨설팅·금융·보조금까지 통합 지원

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, 선박금융,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‘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(One-Stop) 지원체계’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「항공·해운·물류 발전방안」의 후속 조치다.

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, 정부 보조금,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했다. 또한,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·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. 하지만,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·친환경·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,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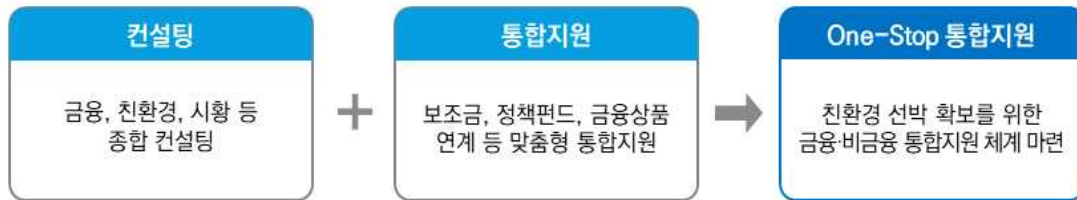
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(중견선사금융2팀 한세희 팀장 ☎ 051-795-1752, 중기상생금융팀 신장현 팀장 ☎ 051-795-1761)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지현 (044-200-5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하 (044-200-57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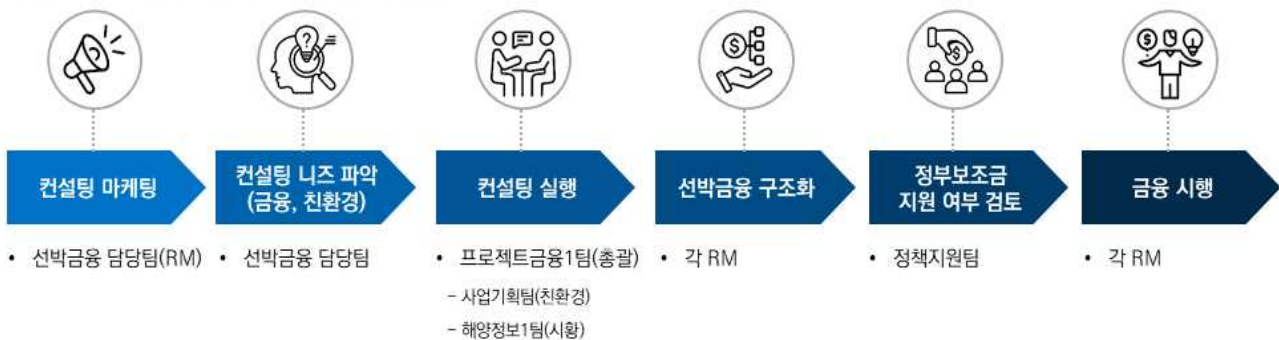
참고

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

해운 탈탄소화 “One-Stop Package” 지원 체계 구축



친환경 선박 확보 One-Stop Package 트랙



- (수요 발굴)** 한국해양진흥공사 대관담당자(RM)가 국적선사에 지원 프로그램(금융, 보조금, 컨설팅 등) 안내 및 친환경선박 도입 수요 발굴
- (컨설팅 제공)** 해운금융*, 친환경규제 대응**, 시항 분석·전망 등 선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
 - * 선사의 자금 수요 기반의 선박금융 컨설팅, 선사 재무현황 분석 등 재무 컨설팅
 - ** 국제해사기구(IMO), 유럽연합(EU) 규제, 친환경 기술 동향 분석 및 전망 제공 등
- (지원 패키지 구성)** 선사별 요구사항에 맞춰 정책금융(펀드, 보증 등)부터 보조금까지 선사에 맞춤형 지원 패키지 구성 및 제안
- (보조금 지원)** 선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친환경선박이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및 신청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 지원
- (금융 지원)** 정책금융기관(한국해양진흥공사 등)의 금융 실행까지 전 과정 지원